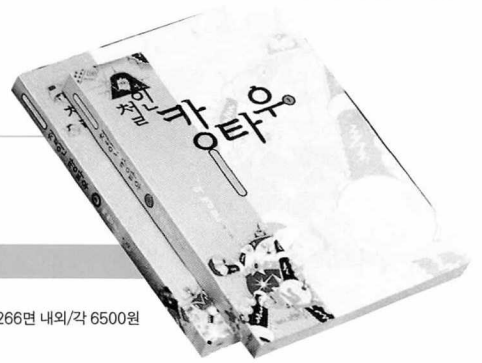


빠가사리가 산다던 내 마음의 파로호

《철인 캠타우》《내일 모레 글피》

김연수 | 소설가



바다출판사/B5/266면 내외/각 6500원

얼마 전 서점에 갔다가 이정문의 만화 《철인 캠타우》가 복간된 것을 본 적이 있다. 이 만화와 함께 나온 길창덕의 《꺼병이》니, 신문수의 《도깨비감투》니 하는 만화들은 내가 국민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클로버문고로 수없이 되풀이해서 봤다. 하지만 바다출판사에서 이 만화들이 복간된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도 나는 이 만화를 구입하지 않았다. 그 만화들이 내게 어떤 기억을 복원시킬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. 어차피 수없이 봤기 때문에 그 만화를 읽으면 지금은 잊어버렸지만 어린 시절에 내가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떠오를 것 같았다.

아니나다를까, 서점에서 잠시 펼쳐봤을 뿐인데도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. 《철인 캠타우》의 첫 장면을 보자마자 내 머릿속에는 고치기 전 고향 우리 집과 시멘트로 포장했던 골목길과 그 골목길에서 뛰어 놀던 친구들이 두서없이 떠올랐다. 가장 놀라운 것은 어린 시절의 내가 《철인 캠타우》를 보면서 느꼈던 공포가 고스란히 느껴졌다는 점이다. 뽀족한 로봇의 이빨로 배를 깨무는 장면이었다. 그 장면이 내 기억 속에서는 실제로 본 것 마냥 생생하게 살아 있었다. 그쯤에서 나는 얼른 책을 덮었다. 이 생생한 기억만은 그냥 묻어두고 싶었던 것이다. 이걸 설명하기 곤란한 심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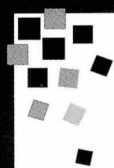
클로버문고에는 좋은 소년소설도 많았다. 예컨대 6학년이 될 때까지 나는 《6학년 0반 아이들》이란 소설을 얼마나 읽었는지 모른다. 우리 어린 시절에는 이런 소년소설이 많았다.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좋아했던 것은 지은이의 이름도 모르는 《내일 모레 글피》라는 제목의 소년소설이었다. 이 책을 쓴 사람은 이밖에도 몇 권의 소년소설이 더 있었는데, 그 중에서 어린 내 눈에 보기에 《내일 모레 글피》가 최고로 좋

았다. 나는 이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모른다.

이 소설과 다른 소년소설의 내용이 서로 뒤섞일지 모르지만, 일단 내 기억에 따라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. 시대는 1960년 무렵이고 배경은 서울이다. 농구를 좋아하고 집에 텔레비전도 있는 소년이 주인공이다. 이 소년이 보낸 1년간의 일이 소설의 주된 내용으로 그 1년 동안 다양한 에피소드가 나온다. 예컨대 시골에 가든가 아침 등산을 한다든가 파로호에 고기를 잡으러 간다거나 하는 등의 일이다. 마지막에 축구대회에 나갔는데, 이 아이는 골키퍼였고 결국 자신의 학급이 승리했다. 아마도 마지막 장면에 “우리에게는 내일 모레 글피가 있다”며 외치는 장면으로 끝났기 때문에 제목이 결정된 것 같다. 이 ‘내일 모레 글피’란 말이 얼마나 좋았던지.

아마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많이 봤던 소설이 《내일 모레 글피》일 것이다. 표지가 너털너털해질 때까지 읽고 또 읽었다. 가장 좋아했던 부분은 파로호로 낚시 가던 장면이었다. 책에 묘사된 파로호는 거의 오지나 다름없었다. 거기서 주인공이 ‘빠가사리’를 잡았다가 가시에 찔려 아파하는 장면이 나온다. ‘빠가사리’가 산다는 파로호가 과연 어떤 곳인지 나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.

수십 년이 지나 자동차를 타고 파로호를 지나간 적이 있었다. 가시에 찔린 일본인이 ‘빠가야로’라고 말했기 때문에 ‘빠가사리’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물고기가 사는 내 마음의 파로호는 사라지고 없었다. 그와 마찬가지로. 다시 읽고 싶은 책이라고 《내일 모레 글피》를 택했지만, 아마 그 책은 다시 읽을 수 없는 책일 것이다. 어쨌든 누군가 이 책을 지은 사람이 누군지만 가르쳐줬으면 한다. ■



도서출판 진리탐구와 함께 할 인재를 찾습니다.

진정 책을 사랑하고 책과 함께 할 사람이라면 지금 도전하세요.

P프로방스

출판 진리탐구

주소 | 서울특별시 마포구 용강동 494-53번지
전화 | 02)703-6943,4 팩스 | 02)702-9352

책은 우리의 '마음의 양식'입니다.
그 마음에 양식을 쌓아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을 저희 편집부에서 필요로 합니다. 열정과 끼로 무장돼 있는 당신!! 머뭇거리지 말고 다음 사항에 도전해보십시오.
그리고 그 꿈을 펼쳐십시오.
다음 : 편집교정, 교열부분 (교정, 교열은 물론 진정으로 책을 만들 줄 아는 사람에서 일할 경력자로 책임 있게 일할 분을 모십니다. 기간은 채용 시까지이며, 보수는 면접시 결정합니다. 반드시 경력자만 응모하시고, 직접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.(담당 편집부 양순찬장)